

동구 문화예술 창작 산실 '충장22' 개관

방치 간장공장 건물 리모델링
문화예술인 22명 작업 공간
구도심 도시재생 거점 역할도



김중효(왼쪽 8번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충장로57에 마련된 도시재생거점시설인 충장22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개관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침체한 광주 구도심 충장로에 방치돼 있던 간장공장 건물이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변신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지난 22일 충장로에서 '충장22'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진식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등이 참석했다. 김중효 행정부시장은 개관식에서 "개관한 충장 22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에 있던 충장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작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산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장22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작업 공간이 22개, 도로명 주소가 22번 길이라는 점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연면적 18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충장로 4·5가의 뷰티 산업, 명인 명장과 연계한 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산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진행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22가 충장로 4가와 5가의 명성을 되찾는 거점 시설이자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장22 개관으로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에서 선정돼 추진한 사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국비 100억원 등 200억원을 들여 추진됐다. 산수동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51억원), 공동 미로센터(52억원), 충장22(74억원) 등 3개 거점시설을 개관하고, 각각을 연결하는 테마 거리도 조성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분양

산업시설용지 31필지



광주시도시공사는 "25일부터 광주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조감도)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는 광주시 남구 대지동 일원 93만2312㎡(28만평) 부지에 사업비 3000여억원을 들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공급단가는 ㎡당 45만3000원이며, 필지당 면적은 2614~7266㎡로 우선 31필지 13만8846㎡(4만2000평)를 공급한다. 입주 가능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연구개발업 관련 6개 업종이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게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해 차세대 전력에너지 산업분야의 산업생태계 구축 및 인접한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압직류송전장치(HVDC), 전력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 것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에너지밸리와 광산구 평동3차 산단을 잇는 남부지역 동·서간 연결도로 사업도 2022년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중이다. 모든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영산강으로 단절되고 연결 통로가 부족했던 광주 대촌·지석동·국가산단 등 광주 에너지밸리와 광산구 평동산단이 연결돼 산단조기 활성화는 물론 낙후한 지역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를 참고하거나 600-666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청~전남대 정문 차로 줄이고 선형 변경 보행로 개선 주민설명회

광주시 북구가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로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22일 주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북구청부터 전남대 정문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 선형변경,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 정온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다. 설명회에서 북구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현황, 보행자 중심 가로 정비계획, 실개천·광장 등 휴식공간 조성, 전남대 정문 5·18 사적지와 민주길을 연계한 대학로 형성 등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



광주시 북구는 지난 22일 주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립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주민과 문화·도로·교통·시민단체·언론관계자와 구의원,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북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실을 다진 후 올해 중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용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도시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연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92기 설치

광주시는 "올해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해 급속충전기 92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비용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추가로 500만~1400만원까지 총 2억원의 투입해 40기(50kW 기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 편의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충전사업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까지 전기차자동차 2458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207기와 완속충전기 1706기 등 충전기 총 1913기를 구축했다. 정동훈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계속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동구, 주택재개발조합과 마을인문자산 보존 업무협약

광주시 동구가 재개발지역의 소중한 인문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조합과 손을 잡았다. 동구는 "학동4구역재개발지역의 인문자산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역사 등의 인문자원을 기록해 보존하고자 추진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4구역은 1946년 백범 김구선생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전제민(戰災民·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 성금을 기증해 세운 '백화마을'이 있는 곳으로, 그 당시 조성된 집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제작된 사진·영상 등 기록물 공유 ▲마을사에 대한 기록물제작 등 인문자산 기록 및 보존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송 절차 없이 광주환경조정위서 환경분쟁 피해구제 받으세요 피해사실·조정·중재 등 구제

광주시는 "대기·수질·약취·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시민은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사자 간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준다. 광주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약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소송으로 분쟁사건을 해결할 경우 평균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등을 위한 전문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해결한 분쟁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특히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11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순석 광주시 자원순환담당은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